



‘작작이 가슴’ 유방암 확률 높다

양쪽 유방의 크기에 차이가 많이 날수록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영국 리버풀 대학 보건대학원의 다이앤 스커트 박사는 전문지 ‘유방암 연구’에 발표한 논문에서 유방 크기의 차이가 100ml씩 늘어날수록 암 발병 위험은 50%씩 높아진다고 주장했다고 BBC 인터넷판이 20일 전했다. 스커트 박사는 X선 검사 때는 유방암이 없었으나 나중에 유방암이 나타난 여성 252명과 건강한 여성 252명을 대상으로 유방 크기의 차이를 측정하고,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대상자의 평균 유방 크기는 500ml였으므로 100ml 차이가 난다면 상당한 수준이다. 양쪽 크기가 똑같은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상자들의 유방 크기가 조금씩 달랐다. 양쪽 유방이 불균형인 여성은 발달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스커트 박사는 추측했다. 그는 불균형 유방은 장차 유방암이 나타날 위험이 높음을 예고하는 것이지만, 가족의 병력 등 전체적인 발병 요인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영국 유방암치료협회의 마리아 리드비터 박사는 두 유방의 크기 차이가 갑자기 벌어지기 시작하면 진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 암연구소의 스티븐 듀피 박사도 보통 왼쪽 유방이 약간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유방암도 왼쪽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51%라고 밝혔다. 그는 유방 불균형에서 오는 유방암 위험의 정도는 조직의 밀도 등 다른 요인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2006. 3. 22〉

과체중이 비만보다 질병 부담 3.2배

과체중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비만에 의한 질병 부담보다 3.2배 가량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팀은 지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의 사망원인 전산자료를 활용해 질병 부담 측정지표인 '장애보정생존연수'를 산출한 결과, 과체중으로 인한 질병 부담을 가진 사람은 10만 명당 827.1명으로 비만으로 인한 질병 부담자(260명)보다 약 3.2배 가량 더 많았다고 21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르면 체질량 지수(BMI)가 30 이상일 때 비만, 25~29 사이일 때 과체중에 해당된다. BMI는 체중(kg)을 키의 제곱(m²)으로 나눈 수치다.

연구결과 비만과 과체중은 당뇨병,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담낭 질환, 골관절염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뇨병과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등 3가지 질병의 경우, 비만과 과체중으로 인한 질병 부담의 95% 이상을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일보 2006. 3. 21〉

금년도 노인 안(眼) 검진 1만 명, 개안수술 1,600안 실시 예정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 안(眼) 검진·수술사업의 검진 지역 및 검진 일정을 확정하고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안 검진 목표는 시·도지사가 추천한 52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 중 1만 명을 검진하는 것이다. 또한 올해의 개안수술 목표는 안 검진결과 백내장, 망막증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과 별도의 노인 건강진단 등을 통해 이미 안 검진을 받은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등 총 1,600안이다. 이와 같은 백내장 등 개안수술 대상자는 안 검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 시·군·구를 통해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03년부터 시작한 노인 안 검진·수술사업은 안과 병의원이 집 가까이 없어 검진이 쉽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2006. 3. 20〉

신간 안내

우리 민족 장수비결(강영철 외)

북한의 의학박사, 교수 등 19명의 저자가 868종의 도서와 8,500여 건의 자료를 종합·정리한 책이다. 북한에 장수나 건강비결 등에 관한 연구 성과가 많다는 것은 꽤 알려져 있다. 북한과 공식적 저작권 계약을 통해 펴낸 이 책은 각종 건강상식과 질병 예방법, 운동요령, 식생활 요법, 건강과 관련한 각종 일화를 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바로 알고 바로 먹자(박명운)

최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책은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들이나 식품 영양 및 보건 분야 전공 대학생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인삼제품, 영양보충 용 제품, 비타민 및 무기질 보충제품 등으로 나누어 총 70가지 품목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였다. 